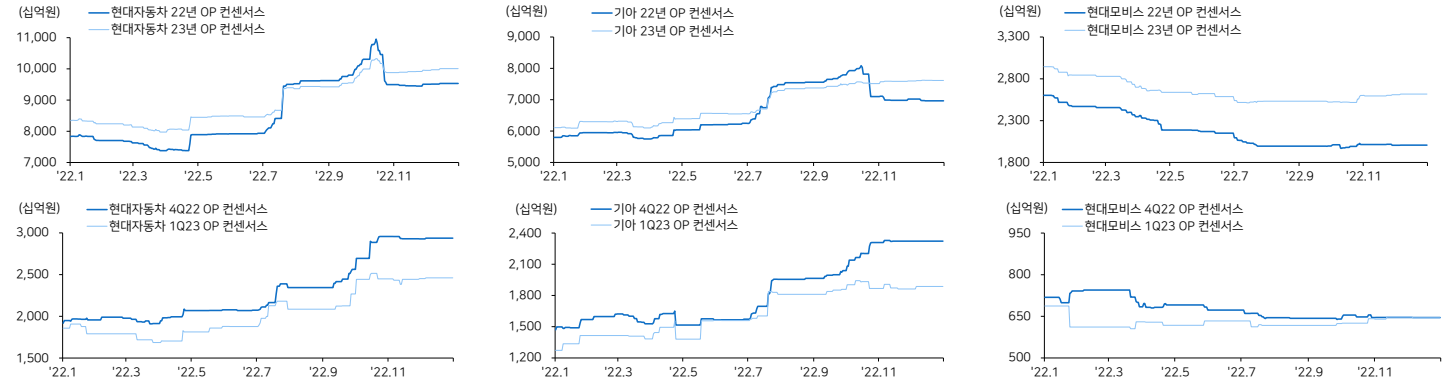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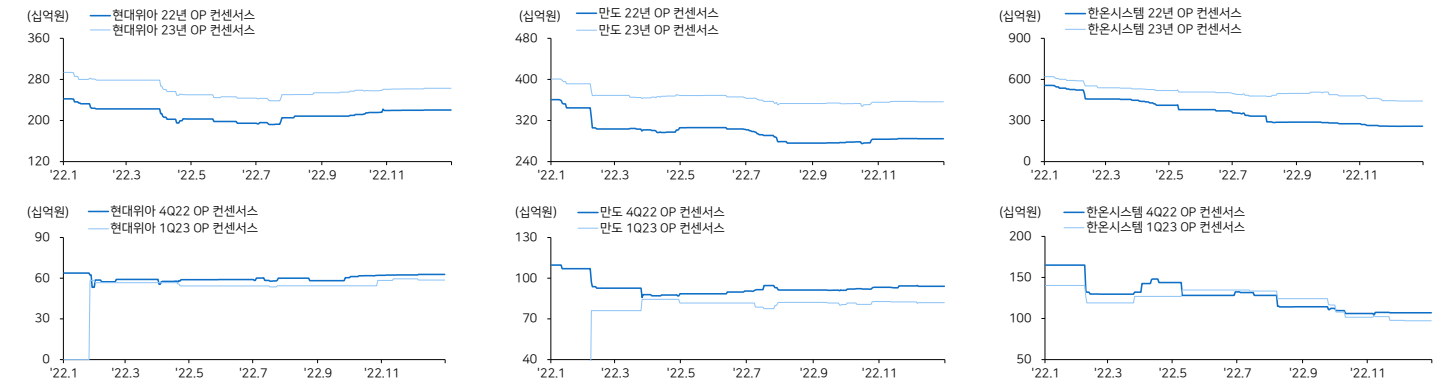


##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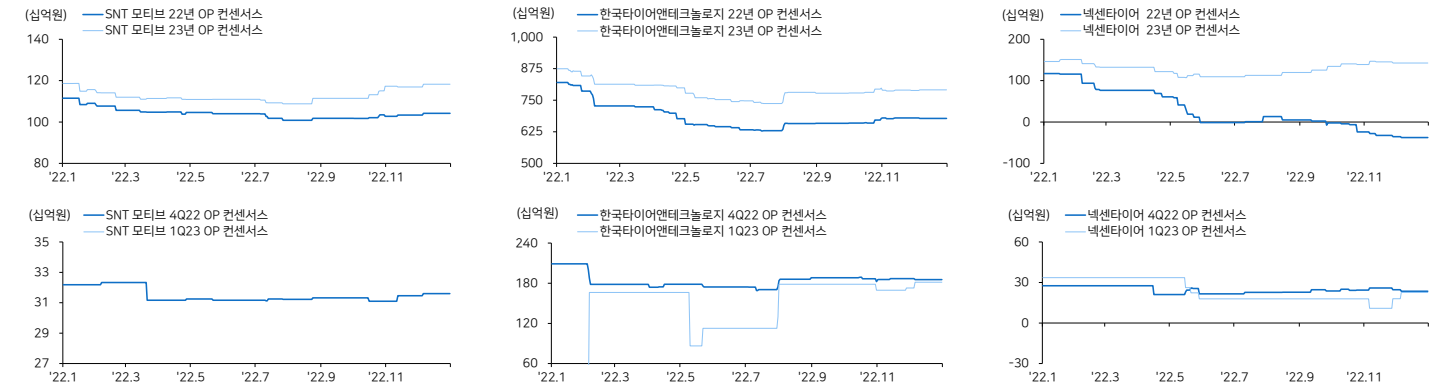
### 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### 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### 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

### 없어서 못 판다던 기아 EV6, '보조금' 배제 IRA 칼날에... (한겨레)

기아의 EV6 미국 내 공식 월별 판매량 수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줄어드는 추세. 현대차그룹은 "공급 부족에 따른 감소분"이라고 설명했으나, 현지에서는 IRA 법안 통과 이후 수요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위기.  
<https://bit.ly/3CXknHr>

### 정의선의 차 '제네시스' 중국서 가격 인상... 테슬라 '반대 행보' 겹는다 (아시아투데이)

현대차그룹은 '정유율 2%' 벽을 넘지 못한 중국을 재공략하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.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약 20% 인하했으나, 제네시스는 소폭 가격 인상을 단행. 또한 올해 GV70/G80 EV 모델을 출시, 판매에 돌입.  
<https://bit.ly/3CVYgYt>

### China NEV Insurance registrations in 2nd week of Jan: BYD 40,420, Tesla 12,654, NIO 2,974 (CNEV)

지난주 중국 NEV 판매는 구배보조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,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99,000대(yoy +37.5%)를 기록. BYD와 테슬라는 각각 40,420대, 12,654대를 판매하며 1, 2위를 기록.  
<https://bit.ly/3J00zQ>

### Indonesia close to EV deals with BYD Group and Tesla - minister (Reuters)

인도네시아는 BYD와 Tesla와의 동남아시아 EV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계약을 마무리짓고 있다고 지난 화요일 해양투자장정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언급.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 자원 활용을 위해 EV 투자를 적극 추진 중.  
<https://reut.rs/3HdR7Pc>

### 中 자동차운반선 수출 폭증, 자동차수출 급증 영향 (뉴스핌)

중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을 배경으로 중국 조선사들의 자동차운반선 수출이 이어짐. 지난해 중국 PCTC(자동차운반선) 신규 수주량은 213만톤으로 전년대비 115% 증가했으며, 전 세계 발주량의 88.7%를 차지.  
<https://bit.ly/3ZUjdq>

### 테슬라가 시작한 중국내 EV 가격인하 전쟁...Xpeng도 인하 (한국경제)

중국에서 Tesla를 시작으로 Xpeng이 다수 모델의 차량 가격을 약 10% 인하한다고 밝힘. 베스트셀러인 세단 P7은 12.5% 할인. Tesla 가격 인하로 인해 중국내 업체들 역시 수요 둔화에 대응해 가격 인하로 맞서는 모습.  
<https://bit.ly/3J4pfya>

### Renault sales fall for 4th straight year (Reuters)

르노 그룹은 2022년 주력브랜드 판매가 약 146만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.4% 감소,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. 최대 시장인 프랑스에서 매출이 15% 감소, 독일에서도 25% 감소하여 글로벌 매출이 15% 감소함.  
<https://reut.rs/3CRllDu>

### Tesla's retail sales in China surged after price cut, brokerage data says (Reuters)

CMBI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중국에서 Tesla의 일평균 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76% 증가한 12,654대를 기록. BYD의 NEV 판매는 동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한 40,435대를 기록.  
<https://reut.rs/3CY0yZu>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